

난
분위기메이커

복덩이된 두 이적생 KIA는 즐거워

난
해결사야



▶박기남

올 시즌 LG 트윈스에서 KIA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김상현과 박기남이 '복덩이'로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내야수 김상현과 박기남은 지난 4월 20일 강철민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타이거즈맨이 됐다. 트레이드 다음날 곧바로 엔트리에 합류한 두 선수의 진가가 발휘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상현은 4월 26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자신의 프로데뷔 첫 만루홈런을 터뜨리며 거포 본능을 과시했다. 이를 뒤 테와의 홈경기에서는 0-0의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던 8회,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며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다시 이를 뒤 2번째 만루포를 쏘아올린 김상현은 올 시즌 4개의 만루홈런을 때려내는 기염을 토했다. 이외에도 8차례 결승타의 주인공이 되는 등 67개의 안타로 63타점을 만들어내며 KIA의 '해결사'로 만점 활약을 해내고 있다.
 또 다른 이적생 박기남은 활발한 성격으로 덕아웃에서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10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이현근의 끝내기 사구로 3-2의 승이 확정되자 박기남은 물병을 손에 든 채 그라운드로 뛰어나가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대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SK와 이를 연속 12회 연장전점을 벌였던 지난달 24, 25일, 불행을 든 채 덕아웃에 대기하고 있는 박기남의

▶김상현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다. 끝내기 안타가 나올 것을 대비해 물을 뿌리는 축하 세리머니를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5월 24일 경기는 3-3 무승부로 끝났고, 25일에는 SK의 황당한 용병술에 허탈한 승리를 거두면서 물을 뿌릴 분위기가 아니었다.
 삼세 번 만에 끝내기 세리머니를 펼친 박기남은 팬들로 부터 '선구안의 달인'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박기남은 올 시즌 53타석에서 6개의 안타를 기록하며 타율이 0.171에 머물고 있지만, 볼넷은 무려 12개를 골라냈다. 5월 15일 SK와의 경기에서는 하루에 4개의 볼넷을 얻어내기까지 했다.
 김상현이 경기 초반 공격에 힘을 보태면, 경기 후반 박기남은 '친구' 김상현 대신 3루에 들어서 수비에 힘을 쓰는 등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는 두 선수는 그라운드 밖에서도 특별한 친구다. 해태 유니폼을 입고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상현은 다시 KIA로 오면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됐다. 반면 서울 토박이 박기남은 난생 처음 타지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기혼인 김상현은 வீ집에 사는 미혼남 박기남의 자취생활이 외롭지 않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박기남은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데도 KIA 선수단 규율이 엄하기로 유명했던 만큼 트레이드 통보를 받고 많은 걱정을 했었다. 하지만 막상 겪어본 KIA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판판이었다.
 박기남은 "선수단 분위기도 너무 좋고, 1군 무대에서 경기에 뭘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선수로 남고 싶다"고 밝혔다.
 제 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하게 된 두 친구의 활약에 가을잔치를 향한 KIA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예인 야구 최고실력은 누구?

선수출신 김C·정보석 '특급'
이휘재·공형진·장동건 '1급'

연예인 야구단 리그전이 TV 전파를 타는 등 '야구 선수 연예인'의 플레이는 프로야구 선수의 활약 못지않은 재미와 감동을 준다. 그렇다면 야구단에서 뛰는 연예인 중에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이는 누굴까.
 연예인과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김C를 지목한다. '천하무적 야구단'에서 해설을 맡은 김C는 한에 소속돼 공수주에서 탁월한 실력을 펼치고 있다.
 다만 김C는 확장시절 야구선수로 뛰었다는 점에서 일반 연예인과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무리다.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한 김C는 고등학교(춘천고) 때 전국대회 8강까지 오르기도 했다.
 또 조마조마의 정보석도 고등학교(성남고) 때 투수로 활약했다. 지금도 팀의 에이스를 맡은 정보석은 구속은 110km

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절묘한 제구력이 훌륭하다는 평가다.
 두 사람을 빼면 김성수(알바트로스)·이휘재·염용석·배철수(이상 한)·공형진·장동건(플레이보이즈)·안재욱(재미삼아) 등이 '1급 선수'로 꼽힌다.
 스투치터인 이휘재는 연예계의 유명명 야구광이다. 두산 등 수도권 프로야구팀 선수들과 절친한 이휘재는 푹푹 밀어치는 교타자 스타일로 유격수를 주로 맡는다.
 장동건은 플레이보이즈에서 마무리 투수로 뛴다. 최고 구속 124km에 달하는 '강속구'가 일품이며 불안정했던 제구력도 요즘 크게 나아졌다고 한다.
 공형진은 '연예계의 이종범'으로 통한다. 1번 타자 겸 중견수를 맡았으며 공수주에서 모두 안정된 기량을 보였다.
 연예인 야구단 선수들은 치열한 연예계에서 스타로 살아남은 만큼 승부에도 강한 근성을 보이고 있다. /연남뉴스

어깨통증 KIA 이범석 14일 미국행

12일 KIA 타이거즈의 이범석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선수단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우측 어깨 회전근염으로 재활 중인 투수 이범석은 오는 15일 미국 LA에 있는 조브리리나에서 MRI 촬영 등 검진을 받는다.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수술을 받고 귀국할 예정이다.
 군입대 문제는 귀국 후 구단과 상의해 정확한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가 예정됐던 12일, 비 때문에 그라운드는 물론 실내 연습장



에서도 훈련이 진행되면서 이범석은 경기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선수들에게 일일이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했다.
 2005년 우측 팔꿈치 수술을 받은 전력에 있는 이범석은 이번에는 어깨 부상으로 다시 한 번 큰 기로에 섰다.
 선수단과의 작별을 고한 이범석은 14일 오후 3시 김준재 의무트레이너와 미국으로 출발한다. /김여울기자 wool@

지은희 한국군단의 희망

US여자오픈 1위 커에 2타차 추격

지은희(23·힐라코리아)가 US여자오픈골프대회 우승컵을 가져올 한국군단의 유일한 희망으로 떠올랐다.
 지은희는 12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베슬리힐의 사우컨밸리 골프장 울드코스(파71·6천740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 3개를 곁들여 1타를 줄였다.
 중간합계 이븐과 213타를 찍어낸 지은희는 선두를 지킨 2007년 이 대회 챔피언 크리스티 커(미국·2언더파 211타)를 2타차로 추격했다. 2007년 조건부 출전권을 받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뛰어들던 지은희는 지난 해 6월 웨그먼스LPGA대회 우승으로 미국 본토에 이름을 알렸고 올해에도 13개 대회에 출전, 톱10안에 4차례 입상하는 성적을 내고 있다. 3라운드를 끝낸 뒤 언더파 스코어를 기록한 선수는 커 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코스에서 지은희만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커를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은희는 퍼트 감각이 살아나지 않아 전반에 2타를 잃고 선두권에서 멀어지는 듯 했으나 후반에 버디 3개를 골라내며 샷 감각을 완전히 회복했다.
 지은희는 "첫번째 홀에서 3퍼트를 하는 등 퍼트 감각이 좋지 않아 불안했지만 7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은 뒤 샷 감각이 서서히 돌아왔다"며 "큰 대회 마지막 챔피언으로 나서게 돼 긴장도 되지만 커와는 평소 친하게 지내 편안하게 경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맞대결을 펼칠 커는 LPGA 통산 12승을 올린 베테랑이다.
 공동 3위에는 테레사 루(대만), 리 케일즈(미국·이상 2오버파 215타)가 자리했고 공동 5위에는 3오버파 216타를 친 박희영(22)과 김인경(21·이상 하나금융)이 이름을 올렸다.
 신지애(21·미래에셋)는 하루동안 5타를 잃는 바람에 공동 42위(10오버파 223타)로 밀렸고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도 서희경(23·하이트) 등과 함께 공동 27위(8오버파 221타)로 떨어져 우승이 힘들어졌다.

전미정 JLPGA 통산 11번째 우승

전미정(27·진로재팬)이 일본여자프로골프에서 통산 11번째 우승컵을 차지했다.
 전미정은 1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인터내셔널골프장 시마마쓰 코스(파72·6천518야드)에서 열린 메이저 초콜릿컵 마지막 3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함께 9언더파 207타로 고가 미호(일본·3언더파 213타) 등을 6타차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연남뉴스

임창용 시즌 34경기 만에 첫 자책점

야쿠르트 스왈로스 수호신 임창용(33)이 올 시즌 34경기 만에 처음 자책점을 내줘 '제로 행진'을 마감하고 첫 패전도 떠안았다.
 임창용은 12일 도쿄 메이지진구장에서 계속된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홈 경기에서 1-1로 맞선 9회초 등판했지만 결승점을 내주고 말았다.
 첫 타자 이사카와 다케히로에게 147km짜

진흥고 결승 좌절

대봉기야구 상원고에 1대5 패

광주 진흥고가 12일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 31회 대봉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대구 상원고와의 준결승에서 1-5로 패했다. 진흥고는 1회초 두 개의 볼넷과 폭투

로 만든 1사 1·3루에서 김정훈의 유격수 앞 땅볼로 선취점을 올렸지만 이 점수가 유일한 득점이었다.
 진흥고는 6회 연속안타로 잠은 무사 1·2루의 기회에서 후속타 불발로 점수를 뽑지 못하는 등 상원고 투수 박희량의 호투에 발이 묶이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진흥고는 실책으로 2점을 내주는 등 공수에서 부진하며 1-5로 저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국제여객선터미널 정기셔틀버스운영 (7/25일부터~매일)

시uttle버스 및 예약 문의 및 예약 : (99) 두동관광 062)383-9042